

# 담배거세미나방(*Spodoptera litura*)에 대한 핵다각체병바이러스와 NeemAzal-T/S의 혼합 살포 효과

길선곤, 김도익, 박종대, 박인진, 임대준<sup>1</sup>, 김규진<sup>2</sup>

전남농업기술원 식물환경연구과, <sup>1</sup>작물시험장 작물환경과, <sup>2</sup>전남대학교 농생물학과

담배거세미나방에 대한 핵다각체병바이러스(NPV)와 NeemAzal-T/S의 단제 및 혼합처리시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 실내에서 인공사료에 핵다각체병바이러스  $1 \times 10^4$ ,  $1 \times 10^6$ ,  $1 \times 10^8$  를 도포하여 사육한 담배거세미나방의 LT<sub>50</sub>은 7.37~5.94일 이었으며, NeemAzal-T/S 75, 100, 200 ppm 살포에서 LT<sub>50</sub>은 5.93~3.45일로 NPV 단제살포 보다 초기에 더 빠른 효과가 나타났다. 그러나 LT<sub>95</sub>는 NPV가 17.69~11.16일, NeemAzal-T/S 30.35~12.98일로 후기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치사율이 더 빨랐다. 두 처리제를 혼합살포한 경우 단제처리 보다 모두 LT<sub>50</sub>과 LT<sub>95</sub>가 더 낮아 NPV  $1 \times 10^8$  + NeemAzal-T/S 200 ppm 이 각각 1.94 일, 8.33일로 가장 낮았다. 유충의 무게 변화는 무처리에 비해 낮았는데 혼합처리에서 처리 1일째부터 무처리와 차이가 나기 시작하여 무게 증가율이 높아지지 않고 7일째에는 무처리와 크게 차이가 났다.

유묘검정에서 NPV나 NeemAzal-T/S 단독처리시 초기에는 살충율이 높지 않았으나 혼합처리한 경우 4일째에 각 농도 NPV + NeemAzal-T/S 200 ppm 처리구에서 70%이상의 살충율을 보여 담배거세미나방의 방제시 초기부터 밀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었으나 금후 바이러스와 NeemAzal-T/S의 적정 혼합농도는 포장조건에서 계속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.